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21대 총선 호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 출마 여부 오래 끌지 않을 것”

이낙연 위원장 당권 도전 고심

대선출마시 당 대표 임기 7개월 당내 기반 확충부담도 적지 않아 “불확실성 야기... 빨리 정리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새 당대표가 ‘대선 관리’라는 중책을 맡기에 이낙연 위원장이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 21대 총선 당선인 12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21대 총선 낙선인(7일)과 후원회장을 맡은 당선인 13명(15일)과 함께 점심 식사한 데 이어 일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당대회 얘기나 특징인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도 안 꺼냈고 누구도 꺼낸 적이 없다”면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 좀 더 당 안팎의 얘기를 듣겠다”면서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고민은 ‘여권 거대 잡통’이라는 수식어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는 당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7개월 당대표’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당내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출마자는 대선 1년 전에 당내 모든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위원장이 만약 당선된 뒤 대선 출마할 경우 당대표 임기는 ‘7개월’에 그친다.

이에 당 내부에서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정적으로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 안 할 것이다’ 말하긴 부담스럽지만 어떤 결론이든 지 빠른 시일 내에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몸싸움 아닌 감금폭행... 軍 구타사건 축소

국유단 구타사건, 2차 피해 논란
상해진단서에 눈 등 타박상 흔적 기술

국방부 직할부대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서 발생한 구타사건은 당초 국방부가 발표했던 먹살잡이와 몸싸움과 달리 감금폭행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폭행을 당한 피해자 A 병장(당시 상병)의 가족들은 A병장의 피해진술서와 군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관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대대장으로부터는 2차적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軍, 먹살 등 몸싸움 vs 피해자측, 눈 찌르고 감금폭행

진술서와 상해진단서 등에 따르면 A 상병은 타 병들과 함께 탁구대가 있는 세탁실에서 탁구를 치던 중, B 상사로부터 내기탁구 제안을 받았다. 내기탁구의 판돈은 12만원까지 올라갔고, 경기에 진 B 상사는 심판을 보던 A 병장을 CCTV의 사각지역으로 끌고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상해진단서에도 눈에 타박상의 흔적이 있다고 기술돼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부는 국유단 폭행 사건에 대해 해당부대 B 상사가 병들에게 내기탁구를 제안하고 패하자 먹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며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방부의 입장발표와 달리 지난날 9일에 발생한 국유단 폭행사건은 피해사실이 축소된 셈이다.

해당부대 대대장은 A 병장의 대대본청 출입을 금지시켰고, 따로 불러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어떻게 후임병을 통솔할 수 있느냐”는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폭행 정황이 있어 수사 중이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세부지침 없이 선택권만”... 학부모 불안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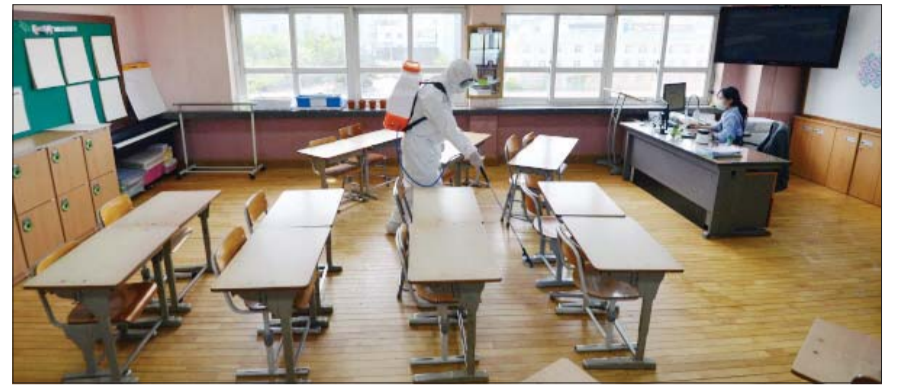
일선 학교 수업 운영방식 의견조사
오전 등교수업형 등 3개 선택지
전문적 식견 아닌 책임전가 지적

“등교수업 운영 방식을 선택해 e-알리미로 19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이씨는 최근 ‘등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운영방식 학부모 의견 조사’라는 알리미장을 받았다. 의견 조사에서는 ▲자율급식 선택 및 오전 등교 수업형 ▲자율급식 선택 및 학년 내 오전 오후 짝-홀제형 ▲급식 의무 실시 및 전체 출석형 등 3개 선택지가 주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등교수업 시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견 조사 취지로 나온 것이다.

일선 학교들이 등교 수업 운영방식 관련 학부모 의견 조사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방역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교육 당국이 선택권을 주는 듯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 당국이 등교 수업을 강행하면서 세부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학부모의 불안감에 불을 지핀 셈이다.

학부모 이씨는 “어차피 한 공간에 모



방역 중인 학교 교실

/뉴스1

여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염은 충분히 가능한데 오전·오후로 나누고 급식을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아이들 등교 수업이 확정되면서 주변 학부모들도 대부분 패닉 상태”라고 토론했다.

같은 취지의 알리미를 받은 학부모 A씨도 “전체 출석을 해도 될지, 오전 오후로 나눠 접촉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지는 현재 상황을 보고 교육 당국과 방역전문가가 전문적인 식견으로 결정할 일 아니냐”면서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 당국은 사실상 과밀학급에 대한 근본 대책도 내놓지 못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 반에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분반 수업 등을 지

원하겠다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18일 내놓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선택·실습·실기 과목에 대해 일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식으로 밀집한 학급 내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밀집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은 학교 공간 제약 상 마련이 어렵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강연홍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근본적으로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은 분반뿐인데 실제 반을 나누려면 공간과 교원 인력이 모두 두 배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학생 간 접촉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교육부-장학재단, 2학기 국가장학금 24시간 접수

마감일, 내달 18일 오후 6시까지
재단 누리집·앱 등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기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기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공적정보와 다르다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해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해 신청 기회를 준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성균관대-씨이엔나노, 산학협력 업무협약

다공성 실리카 나노입자 성능 테스트·공동 연구 추진

미세물질 산업 선도기관 목표

성균관대는 지난 15일 씨이엔나노와 다공성 실리카 나노입자 성능 테스트 및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균관대의 송성진 부총장, 이정현·이기라 교수와 ㈜씨이엔나노의 이요한 대표이사, 한상철 기술이사, 김영수 마케팅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공

성 실리카 나노입자 성능 연구 ▲3차원 MSNs 활용한 나노-바이오, 나노-촉매, 나노-에너지 등의 분야 소재 개발 ▲기능성 소재 표준화 연구 등 공동연구 ▲양 기관 보유자원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세물질 산업분야 선도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송성진 부총장은 “이번 ㈜씨이엔나노와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미세 다공성 물질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산학이 함께



(왼쪽) 송성진 성균관대 부총장, 이요한 씨이엔나노 대표이사

/성균관대

협력하는 좋은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